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4주 -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시편 96:1-7 다함께
- 찬 송 (Opening Hymn) 38장(스크린 참조) 다함께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20번(스크린 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 (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순전한 사랑과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진리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교회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받아들여 이해하고 용서하며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2:18-29 인도자
- 찬양 (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 (Sermon) 이송원 목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4)

- 봉 헌 (offering) 372장(새 595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 (Hymn) 518장(새 463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가정을 위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헌신하신 모든 아버지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3. 예배 후 본당에서 '교회 미래를 위한 3차 회의/투표'로 모입니다.
4. 다음 주 친교 후에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죄은진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요한복음 8:29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기적인 신앙, 곧 기복주의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사귀는 통해서 누리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삶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분의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행위주의에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늘 하나이셨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계시록 2:18-25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1.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8-19절)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권면과 경고를 받았습니까? (20-25절) 나에게 있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미혹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안심하거나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품으면 안 되는 생각은 '이만하면 되지,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되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히6:1-2). 이 완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향한 성화의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할 경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정체가 오게 되고 곧이어 침체가 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져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성도와 교회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부추기는 유혹입니다. 그 우상은 실제적인 우상이기도 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 낸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잘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까지 덮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리어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잘한 것조차 다 상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지켜나가야 더욱 견고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 덮이 되어 우리를 넘어지고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야 할 죄가 없는지 깊이 살펴보고 성령께서 내 안을 비추시도록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